

## 제 5 강 언어와 인간

### ◆ 3교시 흄볼트 - 사고의 틀로써의 언어

#### ▲ 단어의 다의성 인지의 필요성

그럼 이어서 계속 할까요? 좀 전까지 변증법이란 말을 써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물론 변증법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철학사를 통해서 변증법이란 말을 보면 다양한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들을 때 어떤 의미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썼는지 우리가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죠.

항상 특히, 인문학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저런 단어를 썼으니까 그런 의미를 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 사람의 체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죠.

우리가 아까 했던 ‘이미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 하나를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단어들을 쓴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증법’이란 말도 우리가 주의를 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 ▲ 변증법(dialectic)의 기본적 의미

‘변증법’이란 말 안에 크게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말이 아니고 그 반대로, 뭔가를 통한다는 의미잖아요. ‘디알레틱(dialectic)’이 그런 얘기잖아요. ‘디아(dia-)’라는 것이 뭔가를 ‘통한다, 통과한다.’는 의미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의미로 썼고요. 언어라는 의미를 쓰기로 했었고. 특별히 언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 세계로 나가는 그 길, 그것을 ‘디알레틱(dialectic)’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인제 결국은 철학인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한 단계 강등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말이 아닌, 좀 더 모자라긴 하지만 어쨌든 논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을 지칭하는 말로도 썼던 거고요. 이것이 시간적인 과정이든, 아니면 논리적인 과정이든 간에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뭔가를 통과한다는 그런 식으로 사용됐습니다.

#### ▲ 언어의 변증법적 관계

가장 현대적인 의미에서 지금 여기 쓰는 말하고 근접한 용어로 썼던 것이 헤겔이 썼던 변증

법 용언데, 헤겔 본인이 처음부터 ‘정, 반, 합’이란 말을 썼던 게 아니죠. 나중에 (헤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헤겔의 변증법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 반, 합’이란 말이 가장 적절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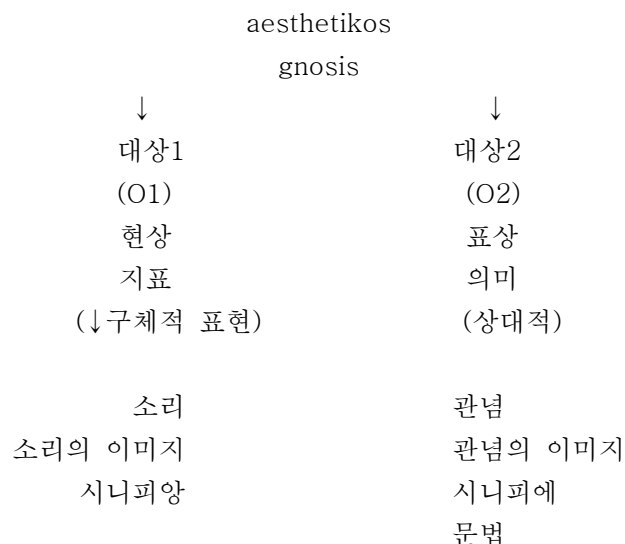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양자 대립 구도가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문화가 마찬가지로. 뭐,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치라는 것도 ‘좌, 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크게 보면 이거예요.

지금 언어에서도 나왔듯이 소리의 이미지, 관념의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 세계가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자연에 없는, 인간만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체계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건(칠판을 가리키며-gnosis 표) 왜 만든 건가요. 저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만들었죠? 그거는 어떤 관념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냥 자연 단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분석적으로 이야기하죠.

분석적이란 말을 왜 할 수 있죠? 단절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 비연속적이라는 것. 연속적인 단계에서는 우리가 분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수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 <참고 - 판서 내용>



### ▲ 수학의 변증법적 관계

우리가 그래프도 그리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화 시킨

것이 수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량화시킨다는 거죠. 수량화한다는 것은 곧 분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분절이 아니라 양적인 분절이라는 데에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수학이라 하는 것은 양적인 학문이잖아요. 20세기 와서는 어떤 질적인,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두 가지 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양에 해당하는 축, 퀄리티(quality)가 아닌 퀀티티(quantity)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축. 그거를 추상화시킨 것이 수학이라고 얘기했지요.

다시 말하면, 질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양에 관계된 부분일지언정 어쨌든간에 연속적인 자연세계를 분절시켜서 추상화시킨다는 것이 수학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분절화 시킨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분절화 시킨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죠.

#### ▲ 변증법으로 풀어볼 수 있는 사회의 관계

사회적 제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임의의 틀인 거죠. 틀을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무언가를 구성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만든 거란 말이죠.

무언가를 구성하기 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군집을 이룬다는 것은 틀 자체가 아니에요. 틀을 만든다는 것은 군집의 어떻게 보면 반대된다는 거죠. 그것을 끊는다는 거예요. 군집이라는 것은 묶어야 되는데 이것을 구별하고 난 여기까지고 난 여기까지고 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끊는다는 자체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스템인 거죠. 주어진 그 틀. 그 틀에 뭐라고 더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본래 우리가 구성하려고 했던 모임, 군집 거기에 중점을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극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거죠. 어느 쪽을 가야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 실재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입장은 어느 한 쪽의 극단이 아니라 그 중간 어딘가 인거죠.

그 중간 어딘가가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있느냐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진보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그렇게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더 기존에 가깝게 다시 가려고 하느냐, 그 쪽까지 일단은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의 이상일 뿐인 거죠.

아니면 구성하고자 하는 이 틀, 틀 자체에 얼마나 더 존중하고 있느냐. 틀 자체만으로도 살 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이상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라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보면 여기와(칠판을 가리키며) 똑같이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루고자 하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역시 변증법적 관계가 있는 거죠.

### ▲ 언어의 틀의 정의와 그 대립관계

다시 말하면, 언어학적 차원 안에서도 본래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연 단계에 있었던 세계 있잖아요, 개념화 시킨다는 거. 그 단계에선 개념화가 아니죠. 어떤 의미화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의 대상이 다른 대상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 그걸 위해서 좀 더 추상적인, 좀 더 분석적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언어의 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리의 이미지와 관념의 이미지 그 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언어, 말에 그대로 굳어있는, 말의 체계대로 말의 의미를 말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죠. 그런 반면에 말이란 무언가를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틀이기 때문에, 지칭하고자 하는 그 실제 세계에 맞춰서 말의 세계가 변형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 중심을 뒀야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언어의, 말의 세계에 중심을 뒀야 한다는 것과 실제 세계에 중심을 뒀야한다는 입장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ideology)적인 그런 생각하고, 에피스테몰로지(epistemology)적인 생각 사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대립관계를 통해서 소리와 관념의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리의 이미지, 혹은 관념의 이미지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통과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다시 소리, 진짜로 나는 소리 말이죠. 그 다음에 관념, 실제로 관념. 이런 세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소리의 세계에서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자연단계에서의 소리와 음성학적인 소리, 다시 말하면, 소리의 그 틀, 소리의 이미지를 통과해서 나온 그런 소리와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의미라고 하는 것과 처음에 썼던 여기(표상→의미)에서의 의미와 실제로 여기서 타고 나온 이 관념의 이미지를 타고 나온, 다시 말해 문법을 타고 나온 그런 의미에서의 관념하고는 비슷하게 가려고 우리가 이야기 하지만, 결코 똑같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 ▲ 음운론과 음성론의 구분

다시 말한다면, 이 지표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지표를 그냥 자연단계

에서,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실제로 소리는 소리지만, 여기서(지표→소리)의 소리가 아니라 음성학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음성학적인 소리예요.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음성론’이라고 우리가 이걸 쓰기로 하죠. 이것(소리의 이미지)을 다른 표현으로 ‘음운론’이라고 해요. 음운론과 음성론은 그런 차이에서 구분이 돼요. 음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의 이미지를 다루는 학문, 추상적인 체계를 하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실제 소리가 나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음성론이라고 해요.

\* <참고>

지표

→ 소리 (음성학적인 소리 = 음성론)

→ 소리의 이미지 (시니피앙) = 음운론

#### ▲ 관념의 구분

마찬가지죠. 관념의 세계도 사실 말하면 이 단계에서는 (지표 - 의미 단계) 여기가 자연 단계와의 경계였잖아요. 이 위에서는 의미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관념하고는 다르죠. 언어화 되기 전의 단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과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에(의미-관념 : 언어를 말하지 않을 때 있는 개념, 동물들도 공유) 관념을 쓰면 안 되는 얘기였죠. 처음에 여기에 썼을 때 그 의미는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전에 언어의 문제를 소리와 관념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다 썼던 거예요.

#### ▲ 소리 이미지와 관념 이미지의 상호관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어학이라는 것의 발견에서는 소리 이미지라는 것과 관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뤄지는 그런 학문이라는 것. 그리고 소리 이미지와 관념 이미지 사이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더 언어학적인 세부의 관계, 언어학이라는 것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언어학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적, 필연적 관계가 없어요, 이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 자체 내부에서는 필연적 관계가 아닌 자기들 세계 안에서의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이 언어학문인 거죠.

#### ▲ 용어들의 중첩에 대한 이해

\* <참고>

의미  
관념  
관념의 이미지(시니피에)  
문법론  
관념  
의미론

그런데 우리가 개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법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쓰기도 해요. ‘문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용어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어떤 용어가 맞느냐는 것은 무의미하고,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관념, 혹은 개념을 다루는 것을 ‘의미론’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용어가 중복되는 것이 보이죠?

여기서(위) 의미를 썼고 여기서(아래)도 의미를 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용어의 사용이 있지만, 왜냐면 이거는 시맨틱스(semantics)라는 분열을 한국어로 달리 표현하기 어려워요. 관념론,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철학에서 이미 관념론이란 말을 썼고. 그렇다고 개념론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하여간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하고 같이 타협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그런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서(위)의 의미와 여기서(아래)의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위)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센스(sense)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아래) 시맨틱스(semantics) 영어에서는 분명히 단어가 다르죠? 그런데 한국말에서 굳이 해당하는 말을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 단어를 만들려면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있는 말 안에서 써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말을 쓰기로 하는데, 단지 여기서 쓰는 의미와 여기서 쓰는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 20세기 들어 주목되고 있는 의미론

20세기 초에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사이 관계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언어학’이라고 하자고 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엘름슬레브 같은 사람 경우가 그렇죠. 연구가 제일 많이 안 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의 단계가 점점 이 의미론 쪽으로 가요.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학의 흐름을 쫓 보면 맨 처음 음성론에서 시작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음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이 시니피앙이 나오기 전, 이러한 것들을 다루기 전에 구별이 잘 안 되던 단계였던 거죠.

그 때 음성론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음운론의 발견으로 인해 언어학의 대 일대 변환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것도(관념) 그렇지 않을까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의 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렇게 가고(의미의 수직적 방향). 어떻게 보면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상당한 언어학자 대부분의 관심이 이쪽(관념)으로 향해 있어요. 이쪽(소리)은 어느 정도 연구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쪽(관념)에서는 과거에는 철학에서 주로 다루던 그런 분야였던 거죠. 논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철학에서 많이 다루던 분야란 말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물론, 언어학에서 말하는 것과고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이 뭐냐면, 언어학에서는 본질적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기술하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철학에서는 올바르게 그렇지 않느냐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보는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판단을 하려면 연구는 해야 되니까, 그 연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대상을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학자들이 이런 20세기에 발견된 세련된 틀을 가지고 비로소 의미론 쪽으로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논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들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많이 작업이 중복되기도 하고 같이 작업이 이뤄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 ▲ 몬테규 이론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작업이, 한국에선 상대적으로 큰 주목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몬테규’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언어 이론인데요. 철학분야에서도 그렇게 큰 주목을 하지 않고, 언어학 분야에서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쪽 분야에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주목은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몬테규’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철학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논리학적인 틀 안에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소쉬르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촘스키 이후의 언어학 이론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물론, 기존의 다른 논리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이름도 주

목을 해볼 만한 이름인 것 같아요.

주로 의미론에 관계되는 그런 연구에 있던 거죠. 언어학자들은 과거에 문법론 관계되는 그런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의미론 쪽으로 많이 가고... 뭐, 지금은 물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로 그 화용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연구 되고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크게 틀을 가지고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증법적인 차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었는데요.

### ▲ 언어의 ‘채워 넣기’와 기본 구조

개념을 이야기 한다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였던 거죠. 저 쪽에서 소리의 차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개념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분절되지 않는, 연결돼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속적인 관념의, 의미의 세계를, 단어라고 하는 어떤 문법 세계의 틀로 분절화 시켜서 우리가 그 안에 ‘채워 넣기’를 하는 거죠.

‘채워 넣기’라는 말은 우리가 현상학에 대해서도 많이 쓰는 용언데, 빈껍데기를 놓고 그 안에 채워 넣는다는 거죠. 그 채워 넣기 과정을 통해서 관념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인데, 비유적 표현으로 거꾸집이라든가 혹은 틀, 채 등 어디다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틀이 없을 때와 내용물은 같을 수 있지만, 배열 자체가 전혀 다르죠.

그리고 분절이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바로 관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있던 무의미한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증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단계,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어떤 주어진 자체를 가지고 의미화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의 어떤 추상적인 매개, 추상화된 틀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인덱스(index) 그 자체가 아니라 주로 소리로 하기 때문에 퍼네틱(phonetic)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센스 그 자체가 인덱스와 센스의 관계였잖아요, 처음에 센스 그 자체가 아니라 ‘컨셉’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언어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소요만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하기엔 어렵고 변증법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해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 ▲ 언어통일에 대한 어려움과 언어학과 철학 간의 물이해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차원들은 전부 언어의 내재적, 인간과 세계와 그 다음에



인간이 세계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축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소화를 시키느냐, 다시 말하면, 언어의 차원이니까, 인식을 하느냐, 정보화를 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용어가 통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것이 칸트의 범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철판에 쓰인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지가 않아요. 칸트가 했던 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오성일까요? 글썄, 그것도 똑같다고 할 수 없어요. 오성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비슷한 취지의 말이라고 얘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성과도 똑같다고 할 수 없어요.

같은 철학자끼리도 용어가 해석이 달라지는 형국에, 서로 간의 대화가 없이 만들어진 언어학 안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대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언어학하고 논리학하고 철학하고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많이 시도했던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언어학자 중에선 벤베니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화가, 분석철학에서 어진 언하는 이런 것들하고 언어학에서 어진 하는 것들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통일된 토론의 장이 있으면 더 건설적인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되는건데요.

워낙에 기본 토양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세계를 철학에서는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념, 의미론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언어학에서 보는 철학 쪽으로 향한 비판은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러는 보니까는 무리수가 나와요. 반면에, 철학에서는 언어학적으로 비난은 아니지만, 분명한 관계의 설정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는 작업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겉데기를 다루는 것이 언어학이라고 단절을 하는 거죠. 물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언어학이 최근에 와서 전부 의미론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 했었죠?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언어학은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공동 작업이 많이 이뤄진다는 것이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런 서로간의 물이해가 있었어요, 상호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철학하고 언어학하고 충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학에서 주로 나왔던 용어들. 범주라든가 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언어학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가. 그거를 통일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오성이라는 말로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칸트가 말했던 범주라는 말하고는 많이 달라요.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범주와는 또 다르듯이. 그 내용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 그 때 언어학적인 지식은 거의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나눴던 범주 내용은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물을 보면 끝이 없고, 넓게 봤을 때, 인간이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 ▲ 사고의 틀로써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인간이, 제가 아까 오성이라는 말을 얘기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서 쓰자고. 그런데 단지 우리가 세계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그런 차원에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정도까지만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언어를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다른 반면으로 언어를 보게 되면 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언어라는 말을 썼을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집단의 혼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언어가 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정 집단 사이에서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언어를 뺏기면 혼을 뺏기는 거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혼, 한국인의 언어가 결국 한국을 표현하는 혼이잖아요.

여러 역사에서도 보고, 한국 역사에서도 보면 그 나라의 혼을 뺏기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를 없애버리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쓰지 않으면, 사고하는 틀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대신에 다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사고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본래의 우리가 사고하는 틀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언어를 얘기하잖아요.

### ▲ 언어, 특정 집단의 혼을 그대로 표상하는 사고

소쉬르의 랑그(langue) 라고 하는 것도 그거였었어요. 특정 어떤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 체계라고 얘기 했었고, 어떻게 보면 소쉬르 이전에 훔볼트(Humboldt)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바로 그 점을 강조한 언어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훔볼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낭만주의 시대의 언어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언어학이라는 분야를 20세기에서의 그런 의미에서의 언어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언어학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본인의 언어학 이론을 독자적이고, 하나의 완성된 결실로서의 모델을 소개는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자바 섬에서의 고대 언어를 연구한 책이 있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주로 흠볼트의 언어 이론을 언급을 할 때는 끝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의 서문을 주로 언급을 하죠.

서문에 나와 있는 언어관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거기서 나오는 언어관이 그거예요.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혼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단의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물론, 맞아요. 그것도 또한 언어에 대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 소마(soma)

그런데, 좀 전까지 봤던 인간의 오성을 가지고 세계를 인식하는 관점하고 또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짐작은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전에도 제가 임상학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실어증이라는 문제를 봐도 그렇고.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소마(soma)’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건데, 좀 전까지 우리가 썼던 ‘aesthetikos’라는 말, 그리고 다음에 ‘gnosis’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오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soma’라는 말이 있어요.

역시 희랍어에서 꺼내온 말인데, ‘몸’이란 뜻이에요. 신체, 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도 많이 다루지는 부분이에요. 몸, 몸이 무엇이나 이거죠.

#### ▲ 대상으로서의 ‘나’(gnosis)와 주체로서의 ‘나’(soma)

초반에 베르그송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내 몸도 하나의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베르그송 경우에. 그런데 이 이미지는 다른 세계에서의 이미지와는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죠. 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 이미지 안에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신경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물질 속에 있는 이미지에요. 이게 물질을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러면 부분이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는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 속에 있는 건데, 물질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

면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전체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라는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발산될 수도 있고, 그래서 베르그송이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에서 그런 전개를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소마(soma)라고 하는 것을,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그 몸과 나를 하나의 주체로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 몸과 같은 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들을 썼는데,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 한다면, 똑같은 ‘나’라고 해보세요. ‘나’라고 하는 이 대상, 아니 이것도 대상이라고 쓰면 안 되죠. 용어를 조심해서 써야 되죠.

‘나’가 대상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경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화시키는 관계에서 그것이 'gnosis'가 됐든, 어떤 내적인 체계가 됐든 간에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보화 시키고, 해석하느냐의 그런 의미에서의 ‘나’가 대상으로서 나를 인식하지 않고, 주체로서 인식을 하는 그런 ‘나’와 같은 라인이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우리가 분명히 이해가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베르그송 이야기에서 있었던 주체도 하나의 이미지고, 물질세계도 하나의 이미진데, 그 이미지들과 이미지들 사이에서 무엇 하나가 특권화된 이미지라는 이런 문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다시 말하면, 대상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의 신체하고,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의 주체를 형성하는 그런 의미하고의 신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고 임상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 ▲ 언어 사용에 있어서 아동과 성인의 차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아동에 관계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동’이 뭔가요? 아이의 정의가 뭐예요. 몸집이 작은 것? 그렇게 아이를 정의할 수 있어요. 아직 덜 큰 것.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인문학적인 설명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사자 새끼도 몸통이 덜 컸어요. 그러면 사자 새끼도 아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무도 그렇잖아요. 새끼 나무도 덜 크고, 나무도 사람보다 더 많이 크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정지를 하죠?

마냥 크진 않잖아요. 그럼 그 나무는 성인된 나무고, 그 전까지는 아직 어린 나무인가. 이렇게 따지면, 아동의 인문학적인 의미에서의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만약, 설명이 안 되면 인문학적인 아동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없는 거죠. 그냥 고등 동물인 거죠. 고등 동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을 테니까 인간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끼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

가 있었을 때, 아동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보면, 정보화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 하면, 정보화 능력에 있어서 성인하고 아동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구체적인 시니피앙의 체계를 가진다면 아동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러면, 애들이 성인들과 똑같이 말하는가. 똑같이 말하진 않죠. 그럼 그게 뭐냐. 그거는 언어의 추상화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표현을 덜 배운 거죠. 성인보다 경험이 덜한 거죠. '표현이 덜하다', '경험이 덜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시간을 두고 어떤 특정 사회에서 집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회 안에서 청소년이 아닌 진짜 아동의 경우,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각자가 이야기를 하실 때, 1인칭, 각자를 지칭할 때 이름을 안 부르시죠.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하지 않아요.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 아무개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웃기죠. 왜 웃긴가요? 그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왜 웃기세요? 간지럽죠, 줌. 자기 이름 대면서. 그렇게 안 해요.

#### ▲ soma와 gnosis를 인지하고 1, 2인칭에 대명사를 사용하는 성인

요즘 말하면, 답살. 손발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웃긴 건 알겠는데, 왜 웃긴가요? 그리고 1인칭만 그런가요? 2인칭도 그렇죠? 2인칭 부를 때도 “너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지, 상대방 이름 대주면서 “아무개 배고파?” 더 웃기죠. 그건 또 왜 웃겨요?

역시 마찬가지로 “애냐?” 이런 소리 듣게 하죠. 그런데 연인들 사이에선 또 하잖아요. 일부러 얘기처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얘기처럼 되나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아이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웃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을 바꿔서 아이하고 대화한다고 해보세요. 애기랑 대화할 때, ‘나’라고 안 하죠.

예를 들면, 조카라든가 아들, 딸, 어린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이모도 아.”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하나 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모도 하나 줘.”, “이모랑 같이 갈까?” 아님, “삼촌이 뭐 사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나, 너 이런 말 안 쓰고, 명사로 써요. 그리고 2인칭으로 쓸 때도 그래요. “너 어디가?”가 아니라 조카 이름 불러주면서, “아무개 어디 가?”, “아무개 나랑 이거 먹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죠? 다시 말해, 명사를 쓰지 대명사로 나, 너 이런 말을 안 써요.

자, 이게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식의 대화라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유가 설명이 돼줘야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성인들 식의 언어활동을 보

면 말예요. 1인칭과 2인칭에다가는 명사를 잘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1인칭은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언어를 구사할 때 보면, 명사나 동사 같은 것은 똑같은 거 반복하기 싫어하고, 뻔한 것 말하기 싫어하고. 다시 말하면, 안 해도 될 말들은 안하려고 해요. 그것이 경제의 원칙이죠. 안 해도 될 말은 안 해요.

명사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그냥 대명사로 하고 끝나지 굳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1인칭은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명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라고 하면 다 알아 들어요.

2인칭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너’라고 하면 다 알아듣죠. 그런데 3인칭은 아니죠?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3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 경우에는 전부다 직접 명사를 지칭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인칭일 경우는 명사를 전부 써주죠. 물론, 3인칭의 경우도 말할 필요 없으면 쓰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써줘야 해요. 그게 이제 차이인 거죠. 3인칭은 그렇게 해줘야 해요. 1, 2인칭은 필요 없어요.

#### ▲ 소마의 구성 능력의 미비함이 아동의 본질이다

그러면 애들은 왜요? 다시 애들로 돌아오면, 애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나, 너라고 얘기하면 이런 말을 헛갈려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한테는 ‘나’하고 ‘너’하고. ‘나’가 뭐죠? 한 마디로 ‘자아’잖아요. 너는요? ‘타자’잖아요.

타자가 뭔가요? 하나의 소마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소마라고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이것은 정보화에서의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정보화 능력에 있어서의 오브젝트(object)화 시키는 것, 이미지화 시키는 것으로써는 아무 문제없어요.

나도 알아요. 나도 보여요. 내가 있다는 것이 다 보여요. 그런데 소마를 못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주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을 못 만드는 게, 그게 아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게(나) 있는 게 알아요. 그런데 객체로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앞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객체로 보이고, 다시 말하면, 1인칭이라고 하는 것, 2인칭이라고 하는 것,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을 헛갈려 한단 말이에요. 개념이 잘 안 서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너’ 이런 말 쓰면 헛갈려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 왼쪽과 동쪽, 서쪽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이쪽이 동쪽이라면 거꾸로 서면 반대쪽이 서쪽이라는 것이 돼야 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다시 말하면,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 이런 개념이 성인들은 되지만, 애들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쪽(자신의 앞쪽)이 동쪽이면, 돌아서도 계속 이쪽(자신의 앞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하고 세계하고 관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이것(개념)이 안 생긴단 말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인간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몸집이 작아서 인간이 덜 된 게 아니라, 소마를 구성하는 능력이 아직 인간에 미쳐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아직 인간이 덜 됐다는, 그게 아동이라는 거죠. 그게 아동의 본질이에요.

#### ▲ 청소년기의 문제는 곧 주체성 확립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그 과정에 보면, 이게 깨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청소년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아를 찾는다.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자아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혼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보면 몸은 성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몸은 성인인데, 자아는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정쩡한 단계에 있는, 그게 청소년기라는 거죠. 청소년기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신체와 사회학적인 의미에서의 자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예요. 아까 말했던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성인이에요. 그건 옛날부터 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아라고 하는 무언가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혼돈으로 인해 부딪치는 거죠. 그게 이제 청소년기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예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마(soma)’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문제라는 말이지요.

#### ▲ 물리적인 차원으로써의 소마가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

자아가 'gnosis'라는 말보다 더 원초적인 단계로 가는 'aesthetikos' 말이 있었잖아요. 'aesthetikos' 말이 물리적인 감각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불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불 끄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감각이에요, 그런 건.

그런 것처럼 아주 더 원초적인 단계로 간다면, 내 자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일단 물리적인 자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팔을) 보면 다 보여요. 정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팔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내 팔이라는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의미로써의 소마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내 자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물리적인 차원으로써의. “뭔데 이런 게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임상학적으로 보면, 정신병원에 가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리를 ‘아악-’하고 질러요. 비명을 지르는 거죠? 쫓아가서 “왜 그러세요?”하고 물어보면, “내 침대 위에 다리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별별별 떠는 거죠. 자기 다리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자고 있다 딱 눈 떴는데, 침대 위에 다리가 하나 딱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에 질려서 떠는 거죠. 자기 다리예요, 그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차원으로써의 자기 몸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안 보여서요? 아니, 보여요.

#### ▲ 소마(soma)는 나와 타자를 구별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화의 능력은, 그노시스(gnosis)의 능력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소마(soma)는 안 돼요. 그런 차원으로써의 인간을 만드는 능력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현대 과학으로는 그노시스(gnosis)를 다루는 부분이 뇌에 어디에 있다는 것은 찾았지만, 소마(soma)를 제어하는 능력이 뇌에 어디에 있는가는 찾지 못했어요.

단지, 임상 경험을 통해서만이 구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 피아(彼我)가 구별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다 구별해버리는 경우. 우리와 같은 그런 의미에 나, 나와 타자의 구별을 못한다는 경우.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흔히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성도착자.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면, 노출증이라든가, 관음증이라든가 대표적인 이 2가지의 경우, 우리가 성 문제를 똑바로 제어를 못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환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문제가 다른 데에 있다는 경우, 그러니까 원인을 보면 이 증후군하고 다른 거예요.

#### ▲ 같은 류의 소마(soma)를 구분하는 능력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 이외에 타자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내 눈에 보여서만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눈에 보여서 구별하는 거라면 이 컵도 타자라고 구별을 해야 해요. 그런데 컵을 타자라고 얘기는 안 해요.

마찬가지로, 다른 무언가를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놓아도 그를 타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류의 소마(soma)가 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같지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타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자 앞에서는 내가 뭘 공유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동시에 타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동시에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 방안에 내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컵한테 말을 안 걸어요. 컵은 타자가 아니니까. 오브제로써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나 컵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앞에 계신 분들은 나한테 타자예요. 컵은 내 타자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컵한테 말을 걸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컵한테 말을 건다든가 그런 행동이 나왔다 하면 헛것이 보여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 ▲ 소마(soma) 구별이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 - 예) 노출증

반대의 경우라면, 내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브제로만 보이고, 다시 말하면 타자로 보이지 않고, 나랑 동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한다든가. 노출증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증 환자들을 잘 보면, 성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물건, 예를 들어서 내 필통을 보여준다든가. 그걸 봐서 뭐해요? 내 필통을? 그런데 내 필통 보듯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내 수첩, 지갑 보여준다든가. 그걸 봐서 뭐해요?

아니면, 남의 것을 본다든가. 제가 다른 사람의 필통을 열어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나하고 타자, 만약에 필통이 원숭이의 필통이라면 열어볼 수 있죠. 왜냐면 원숭이는 다름의 정도 남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필통을 함부로 열어볼 열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관계가 보통 인간의 경우는 적절하게 다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라면, 갑자기 남의 필통을 열어본다든가. 그거 봐서 뭐한다고 그걸 열어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 했던 도착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욕망의 무언가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소마를 구성하는, 자아를 구성하는 것이 조절이 잘 안 돼서 공유 안 해도 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상을 해보면.

#### ▲ 인간의 제어능력과 언어능력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과 언어의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더 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어의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도(제어하는 능력)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능력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능력이 없다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혼자 일기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커뮤니케이션은 못해요.

그리고 갑자기 불어로 한다든가, 어디까지 뭘 공유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좀 더 애기가 돼야 될 거예요. 이 관계가 발전이 되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 하고요.

다음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시간 수업을 할 게요.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로 일단 수업 시간을 그렇게 할게요. 오늘도 약간 바뀌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할 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